

2005 5월호 제362호

주부교실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NATIONAL COUNCIL OF HOMEMAKERS' CLASSES

본회는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부에게 부하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어 주부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전개로 새 주부상을
정립해 나간다.



월간 주부교실 5월호

발행일 : 2005. 5. 20
등록일 : 1972. 8. 31
등록번호 : 라-1616호

*발행 : 사단법인전국주부교실중앙회
발행인 : 이윤자
편집인 : 김태연
주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전화 : 2265-3627, 3628, 0637
2266-5870, 2273-6300, 2485
FAX : 2279-9341
<http://www.nchc.or.kr>
*인쇄 : (주)헤럴드미디어
대표홍정욱

비매품

주부교실

2005 5
통권 제362호

생각해봅시다	4	함께하는 '가정의 달' 만들기/조희금
전국지도자대회	6	사진으로 보는 전국지도자대회
	10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에 앞장서는 전국지도자대회
주제강연	12	새로운 가족문화를 위하여/이광규
	15	노화와 기능적 장수/박상철
실태조사	18	휴대전화 콘텐츠 이용 실태/대전주부교실
알아봅시다	21	여행사 통한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고발사례	22	소비자의 소리/곽정자
소비자뉴스	24	보험금 청구대 가입증서 없어도 된다
식품뉴스	26	건강기능식품 치료효과 논란
여성뉴스	28	"지나친 다이어트 퇴행성관절염 유발"
북한뉴스	30	북한 어린이들의 명절-국제아동절
에너지절약가이드	31	고유가 시대의 경제운전법
금융길라잡이	32	금융거래! 아는 만큼 보인다(사금융거래)
의료정보	34	의료이용시 불편사항 처리 이렇게 하세요
소비문화	35	'신소비족'이 증가하고 있다
수필	36	남은 생의 첫날/김년희
가정요리	38	저렴한 가격으로 만든 건강요리
문화산책	40	이 달의 읽을 만한 책
지부소식	41	전국 16개 시·도 지부 및 234개 시·군·구 지회 소식
주부교실게시판	50	우리 쌀 바로알기 세미나 및 가족캠프 운영

<표지사진 : 2005년도 전국지도자대회(중앙회, 05. 4. 26~27), 제28회 주부교실 회원 친선
운동회(대전광역시지부, 05. 4. 30)>



조 희 금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장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함께 하는 ‘가정의 달’ 만들기

어린이 날(5월 5일), 아버지 날(5월 8일), 입양의 날(5월 11일), 가정의 달·스승의 날(5월 15일),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 부부의 날(5월 21일)...

달력만 보아도 5월은 실로 가정의 달임이 분명하다.

요즘은 가족단위로 가정의 달을 알차게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편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정의 달이란 빠듯한 살림 속에서 짬지돈을 쪼개내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또 핵가족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에는 지나치게 부부 중심적 또는 자녀 중심으로 가정의 달을 보낸 다거나, 시골에 사시는 노부모님께는 어버이날에만 반짝 방문하거나 선물만을 드리는 경우가 간혹 보도되어 ‘썩쓸한 가정의 달’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인 5월에만 가족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상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진정한 ‘가정의 달’이란 부모 또는 자녀의 도리가 부담스러운 껍데기 뿐 인 가정의 달이 아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5일제가 실시되고 가족단위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가족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내용면에서도 단순한 외식이나 여행보다는 유적지 탐방, 가족자원봉사와 같이 가족단위로 테마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가족여가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여가활동들을 계획할 때에는 가족이 함께 하고자 하는 활동의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무슨 무슨 날이니까 라는 식의 생각은, 활동의 내용이나 질보다는 ‘어쨌든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 했다’ 라는 식의 단순한 사실에 큰 가치를 두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족이 몇 시간을 함께 있었느냐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무언가를 했느냐, 그것을 하는데 가족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었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개개인의 생활이 점차 복잡

해지고, 가족이지만 서로의 생각이나 생활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로 드는 것에는 ‘TV시청’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가족이 ‘나란히 한 곳을 보고 앉아서’ TV를 ‘각자’ 바라보고 ‘각자’ 웃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그 시간을 통해 가족이 그 무엇인가를 공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점점 무미건조해지고 개인생활이 증시되는 사회분위기에서 치우쳐 살다보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은 있지만 ‘가족’은 없는 세상이 오고 말 것이다.

2005년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는 첫 해이다. 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가정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개인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국가 및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바꾸어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정책을 마련하고 개인과 가족이 여기에 동참할 때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족시간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가족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함께 했느냐보다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족이 무엇을 함께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한 시간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짧은 시간을 함께 하더라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나 활동에 대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사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가족간의 토론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주제를 찾아

내야 한다. 가족활동의 주제를 찾기 위한 토론시간을 통해 가족간의 대화시간을 늘리고 서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계기를 자연스럽게 마련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시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선택된 주제에 따라 어떤 활동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된 일정과 내용대로 가족활동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이 활동을 통해 느낀 점, 가족이 함께 해서 어땠는지, 앞으로는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단위 자원봉사를 계획한 경우, 그 가족만이 잘 해 낼 수 있고 특기를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이런 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누구일지 그리고 그런 대상이 주변 가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봉사활동 후 가족간에 서로 평가해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족간의 많은 대화와 토론, 그리고 서로 모르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족만의 여가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쉬운 과정만은 아니다. 가족전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한 발 양보하는 것도 배워야 하며, 바쁜 생활속에 짬짬이 가족을 위해 시간도 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가족을 위한 구성원들의 작은 배려와 노력이 모인다면 우리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우리 가족은 가족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앞으로 가족시간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사진으로 보는

전국지도자대회



대회를 통해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에 앞장서는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 지도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본회 이운자 회장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치사



장하진 여성부 장관의 격려사



조배숙 국회의원의 축사



새로운 가족 문화 창출에 앞장서는 지도자로서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주제 강연 (좌로부터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최은희 칼럼니스트)



치사를 통해 주부교실 지도자들을 격려해 주는 박달영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장



박순자 국회의원의 격려사



가스안전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고복자 경기도 부회장, 박진자 광주광역시지부 운영위원, 이인호 경북도지부 사무국장에게 가스안전공사 사장상 수여



10년 근속한 회원들에게 근속상 수여



16개 지부기 입장



김영주 국회의원의 격려사

국민물교육센터 창립 발대식의 치사를 통해 주부교실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박선숙 환경부 차관



15개 시·도지부 회장에게 물교육센터 현판 전달



주제 강연을 통해 물사랑 실천을 강조(전병성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친환경축산업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부의 역할을 강조한 박홍수 농림부 장관



이송자 전라남도지부 회장의 선창으로 결의문 채택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주제 강연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



노화의 장수에 관한 주제 강연(박상철 서울대 의대교수)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에 앞장서는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

- 주부교실 지도자 1,200여명이 참석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세확립과 회원 간의 결속과 화합의 시간 가져 -

전국에 있는 주부교실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도자로서의 자질 함양과 회원 간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전국지도자대회가 올해는 4월 26~27일 1박2일 과정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에서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에 앞장서는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란 주제로 주부교실지도자들 1천 2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6일(화) 임경애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올해 대회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장하진 여성부장관을 비롯해 조배숙 국회의원과 황인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이 임석해 주시어 치사를 통한 격려의 말씀에 주부교실지도자들은 크게 고무되었으며 평생학습 정착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주제강연에는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최은희 칼럼니스트를 초빙하여 ‘새로운 가족문화를 위하여’, ‘글로벌시대의 경쟁전략’, ‘가정의 행복은 여성이 만든다’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가스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 생활화 실천결의대회

오후 5시에는 “가스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 생활화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달영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박순자 국회의원 및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부인 이운영씨를 비롯한 관련기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내빈들의 치사와 격려사 및 경북도지부 이인호 사무국장의 우수사례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으므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가스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항상 가스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가스안전생활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주부교실지도자들은 가스안전사용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 전원이 손기순 대구광역시지부 회장의 선창에 따라 가스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가스안전관리 의식강화에 앞장서고 철저한 안전관리 생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또한 가스안전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부 고복자 부회장, 광주광역시지부 박진자 운영위원, 경북도지부 이인호 사무국장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상을 받았다.

이어 방송과 칼럼 등을 통해 잘 알려진 “행복전도사” 최윤희 칼럼니스트가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의 수많은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의 행복

은 여성이 만든다’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었고, 이어서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해주기 위해 임석해 주신 이명박 서울 시장의 노인복지 확대정책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저녁식사 후 다시 한자리에 모인 주부교실지도자들은 문성원 레크레이션 전문지도자의 사회로 진행된 ‘회원 한마음 잔치’ 시간을 통해 긴장으로 인해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한껏 풀 수 있었다. 이 시간은 참석자들이 평소 간직해왔던 장기들을 개인별, 단체별로 마음껏 뽐내면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국민물교육센터 창립 발대식

다음날인 27일(수) 주부교실지도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이윤자 본회 회장으로부터 주부교실지도자로서의 자세확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들은 후 오전 9시부터 “국민물교육센터 창립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선숙 환경부 차관과 김영주 국회의원의 치사와 격려의 말씀은 본회가 국민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주부교실지도자들은 국민물교육센터 창립 발대식 선언문을 낭독했다. 박한옥 서울특별시지부 강남구지회 회장의 선창에 따라 대국민 물 교육과 함께 물 사랑 실천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곧이어 전병성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으로부터 ‘물, 우리의 미래입니다’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친환경축산업의 발전과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결의대회

오전 10시 친환경축산업의 발전과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송석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김규중 전국오리협회 회장, 한형석 한국계육협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김동성 대한양돈협회 전무의 참석으로 더욱 뜻 깊은 대회가 될 수 있었다.

본 대회에서는 먼저 최근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격보다는 안전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정성 확보라고 보았다.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품질에 대한 신뢰확보가 핵심과제에 대두되면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식생활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주부의 역할 강조와 함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의 선택과 과학적인 식단운영으로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친환경축산업의 발전과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이송자 전라남도지부 회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 모두가 가족의 건강은 물론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제고 및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 선별능력 향상으로 부정한 유통거래 근절에 앞장서는 감시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대회가 끝난 후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으로부터 ‘농산물 안정성 및 친환경 농업정책 방향’, 박상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부터 ‘노화와 기능적 장수’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주제 강연을 끝으로 이틀간 열린 2005년도 전국주부교실지도자대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참석자 모두가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에 앞장서는 주부교실지도자로서, 각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내년에 만날 것을 기약했다. ■

새로운 가족 문화를 위하여

이광규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1. 급변하는 세계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인류는 원자시대에 진입하였다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인류는 원자시대를 지나 전자시대로 진입하였다고 하였다.

원자시대, 전자시대와 같이 현재가 큰 전환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소재로 인하여 철기 시대가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생활에서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인 인쇄술은 20년 전만 하여도 원고를 보고 활자를 조판하여 책과 신문을 인쇄하였지만, 오늘날 신문사와 출판사 심지어 개인들도 컴퓨터로 조판하고 이것을 컴퓨터로 프린트하여 책을 만들고 신문을 만들고 있다.

인류가 정보의 양과 속도로 경쟁하는 정보산업(Information Technology: IT) 시대로 진입하자 이어 BT시대, NT 시대, CT 시대 등의 새로운 용어가 속출하고 각기 생체, 물리, 문화 등에서 새로운 경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인류를 실은 지구라는 거대한 배는 유유히 그러나 큰 각도로 회전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 한국의 사회변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우

리가 농업국에서 산업국으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오늘날 한국은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등에서 10대 강국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탈산업시대를 주도하는 IT산업에서는 3대 강국에 진입하여 오늘날 세계 IT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반세기, 우리는 근대국가를 건설하였고 산업국가를 이룩하였으며 다시 탈 산업국가에서 최선진국이 된 것이다.

탈산업사회로 진입한 지 10년도 넘기기 전에 우리 사회에는 산업구조에서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탈산업사회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탈산업사회 현상의 하나가 노령화사회이다. 한국에서 1990년 노령화 사회를 우려하는 소리가 나온 지 10년 사이에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의 선진국보다 빠르게 노령화 사회가 진전되고 있다.

노령화 사회보다 더 우려되는 사회현상의 하나가 이혼율의 증가이다. 이혼율이 사회발전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 사회현상의 탈산업화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 이혼율의 증가이다. 우리와 유사한 근대화를 경과한 일본이 근대국가로 진입한 후 명치유신을 경과하면서 이혼율이 급증하였고, 근년에 또 일본에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업화 사회에서 탈공업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현상이다. 우리의 경우 이 두 시기의 이혼율 증가현상을 한 번에 치르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탈산업사회의 또 하나의 사회현상이 인구감소 현상이다. 산업사회에서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탈산업사회에서는 미혼자가 증가하며 미혼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사람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아이를 갖기 싫어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이다.

3.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화

근대국가를 건설하고 산업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다시 탈산업사회로 전환하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한국 가족이 사회 못지않게 크나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한국 가족의 변화를 크게 둘로 나누어 하나는 외형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외적 변화(구조적 변화)와 밖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내적 변화(기능적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는 첫째 소인수 가족화, 둘째 핵가족화, 그리고 셋째 가족의 고립화 현상이다.

소인수 가족화는 가족이 자녀를 적게 두는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한국농업은 가족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공업사회에서는 자녀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비자일 뿐이다. 더욱이 산업사회에서의 부모는 수입을 예측하고 수입에 따라 양육할 수 있는 자녀를 두기 때문에 현대가족은 소인수가족이 되는 경향이 있다.

현대가족은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여야하기 때문에 3대가 같은 공간에서 살기 어렵다. 3대가 동거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결혼한 자녀만이 아니다. 결혼한 자녀와 동거하는 부모도 어려움이 많아 자녀들이 부모와 동거하기를 원하여도 오히려 노부모가 별거하기를 원해 노인 핵가족이 증

가하는 것이다. 젊은이의 핵가족화와 노인들의 핵가족화 등이 유행하여 근대 사회는 핵가족화 경향이 강하다.

현대사회는 집들이 근접해 있어 가시적인 이웃은 많아졌으나 마음을 줄 심리적인 이웃이 없어졌다고 한다.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 때문에 한가하게 이웃과 이야기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더구나 이사를 자주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가족의 고립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위에서 보아온 것이 한국 가족이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야기된 현상이라면 탈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생긴 구조적 변화 현상이 있다. 그것은 다양한 가족유형이다. 전통 가족에서 부부라 하면 남자가 연상인 것으로 여겨왔으나 여자가 연상인 가족이 출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여자가 외국 남자와 결혼했던 국제결혼과 달리 외국 여자와 결혼하는 한국 남자가 많아지는 가족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 또 하나의 현상은 주말부부가족과 이혼부부가족 등 가족이 넓은 영역에 흩어져 있는 분산가족이 많아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탈산업화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안목부터 가져야 한다.

4. 한국 가족의 기능적 변화

한국 가족이 변한 것은 외적인 구조적 변화만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의 변화도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한국 가족은 많은 기능을 갖고 있었다. 한국의 전통사회만큼 가족이 중심이었고 가족을 위한 문화는 없었을 것이다. 한국과 서양을 비교할 때 서양은 개인중심의 문화라면 한국은 가족중심의 문화였다. 한국 전통 사회의 가족은 생식의 기능, 교육의 기능, 의식주의 경제적 기능, 정서적 기능, 그리고 종교적 기능을 가진 사회였었다.

이러한 가족의 기능이 공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소인수 가족화 현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생식의

노화와 기능적 장수

박상철 /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기능이 약화되었고, 교육의 기능이 학교라는 공기관에 의하여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교육에 필요한 권위공간이 없어져 가족자체 내에서의 교육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의 기능, 종교적 기능 그리고 경제적 기능이 약화되었으나 현대 사회에서 강화된 기능이 있다. 그것은 정서적 기능이다. 가족의 정서적 기능이란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쉬는 것을 말한다. 집에서 잘 쉬어야 다음날 직장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쉬는 것을 쉬다 하지 아니하고 재생산과정이라 하였다.

휴식의 기능을 잘 수행하려면 안락의자와 같이 물질적 장치와 안락한 환경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다. 말하자면 직장 생활하는 남편이 집에서 잘 쉬게 하는 것이 주부이지 안락의자가 아니다.

그러나 휴식의 기능을 잘 수행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남편이다. 남편이 잘 하여야 부인도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다. 근년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휴식의 기능을 담당하여야 하는지 모르게 되었다.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고 퇴근하여 더 지친 사람은 남편보다도 부인일 것이다. 더 지친 사람을 위로하고 잘 쉬게 하려면 남편이 더 봉사하여야 한다.

전통 가족에서 남녀의 역할구조는 분명하였다. 가장인 남자는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주부는 아내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대 가족에서는 남자가 오로지 가족의 수입을 전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집밖의 일을 모두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가족 내의 남편의 역할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없어 한 때 “자부업모”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남자의 수입 전담화 경향이나 주부

의 가사 전담화 경향은 산업사회의 가족에서 행하던 중요한 기능이었고 그것이 정서적 기능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탈산업화 사회에서는 정서적 기능이 가사 전담화보다 상위에 있게 된다.

5. 새로운 가족 문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변화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인식하는 중요한 목적을 말하자면 현대 가족문화의 중요한 지향점은 개인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가족이 있는 것이다.

탈산업사회의 가족은 부부중심가족이 되어야 한다. 부부중심가족이 탈산업사회가 추구하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가족을 이룩할 수 있고, 개인의 존엄성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창의성을 가장 잘 발달시킬 수 있는 가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의 기능은 당연히 휴식의 기능을 잘 수행하여야 하지만 부부가 친구가 되어 대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휴식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 가족의 평면도는 거실, 부엌, 안방이 동일한 평면상에 바로 붙어있는 것과 같이 남자의 공간 여자의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엌일도 남녀가 같이 하듯이 역할에도 남녀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남녀 역할의 혼돈이 탈산업사회 가족의 특성이다. 이것을 양성역할이라 하겠다.

남녀의 두 인격체가 만나 상호간의 부족한 인성을 보완해가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끔 상호 노력하는 것이 현대 가족 문화의 특성이라 하겠으며 이것을 위하여 부부가 매진하는 것이 새로운 가족 문화에서의 부부의 역할일 것이다. ■

고령사회의 문화적 문제

고령사회에서 개개인은 장수(長壽)라는 시간적 개념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 인류역사에서 현재와 같은 초고령자의 수적 증가와 그들의 역동적인 삶을 경험하여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장수(長壽)라는 용어는 노인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연령적, 시간적 개념의 결과가 아니라 보다 사회적 측면에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층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장수시대에 알맞은 문화의 창출은 매우 시급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수문화란 종래의 연령적 특수계층인 노인중심의 노인문화(老人文化)라는 개념이 아니고, 연령을 초월하여 고령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인 인간들이 남녀노소 함께 어우러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관념 및 규범 체계라고 정의해 본다. 이러한 개념의 장수문화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함께 건강장수를 추구하며,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능동적 생활을 영위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화란 무엇인가?

1) 노화현상은 생명체의 생존전략(survial strategy)이다

노화라는 기본적인 생명현상은 정의하기 쉽지 않다. 개체적 수준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기능적 저하와 형태적 변화에 의한 판별은 용이하나, 이를 보다 본질적인 측면인 세포수준 또는 분자수준에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노화현상은 매우 공통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개체적 수준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보편적(universality)으로 초래되는 일반통행적인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의 변화로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inevitability)으로 초래되는 기능적 저하를 동반하는 형태적 변화현상이다. 따라서 노화는 죽음의 전 단계로서 인식되었고, 노화동물·노화세포의 외부 독성 자극에 대한 사망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젊은 동물이나 세포보다 훨씬 높을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본인의 연구실에서 최근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새로운 의외의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노화세포가 외부의 강도 높은 자극에 대하여 젊은 세포보다 오히려 저항능이 높고 사망률이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은 노화라는 생명현상에 대한 개념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면 인체 유래 섬유아세포(human diploid fibroblast, 이하 HDF로 약)를 계대배양하면 세포노화가 초래된다. 이들 세포에 자외선이나 강한 화학물질을 투여하면 젊은 세포들은 쉽게 세포사멸이 유도되는데 반하여, 노화세포는 강한 저항능을 나타내고 있다(Yeo et al, 2002).

이러한 현상은 세포 수준 뿐 아니라 개체수준

에서 비교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노화현상의 생물학적 의의가 죽음의 전 단계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생존을 위한 환경 적응적 변화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화세포의 생존전략은 손상된 세포를 빨리 제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암이 유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노화에 따른 생존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크게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부각되고 있다. 즉 늙으면 죽는다는 또는 죽어야 한다는 명제를 생명체는 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살아 남기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노화현상이 초래됨을 보여주고 있다.

2) 노화현상과 기능저하: 의미와 해결방안은?

노화세포는 세포사멸유도에 대한 저항성(apoptosis resistency)과 더불어 성장인자에 대한 반응저항성(hyporesponsiveness to mitogenic stimuli)을 가지고 있다. 즉 세포가 늙어지면 성장인자(growth factors)를 처리하여도 세포 증식이 유도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노화현상의 비가역성(非可逆性, irreversibility)을 나타내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러한 노화세포의 비가역적 세포 주기 정체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특히 세포신호 전달체계의 양적, 질적 변화 등에 주목하여 왔으나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실에서는 노화세포의 기능저하, 특히 성장인자 반응저하요인으로 새로운 지견을 발견하여 제안하였다. 노화세포의 카베올린 저하를 유도하거나 암피피신을 주입하여 보충하여 주었을 때, 노화세포의 기능이 회복되고 형태적 변형도 수복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Cho et al 2003). 이러한 연구성과는 실험실적 연구 뿐 아니라 인간의 노화종적관찰연구를 통하여서도

분명해지고 있다. 즉 인간의 연령증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생리기능이 저하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별로 차이가 현저하며 개인별로 노력에 따라 기능이 회복되는 예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점은 노화에 대한 결정론적인 시각을 벗어나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단순한 수명장수가 아닌 기능적 장수(functional longevity)라는 신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수명연장인가 기능적 장수인가? - 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노화와 수명은 야누스(janus)적 개념이다. 노화가 되면 수명은 한계에 이르고, 수명은 노화의 다른 측면으로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이면서도 상호배제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세포나 동물을 대상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구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진지하게 추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유전적 소인과 달리 환경적 또는 생활 습관적 영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노화종적관찰연구(Baltimore longitudinal study on aging, BLSA)에서 노화가 연령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그리고 동일개체에서도 장기에 따라 노화속도가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장수 지역의 지역적 분포라든가 장수인들의 생태적 특성이 거론되면서 노화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 그 제어방법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따라서 노력에 의한 또는 인위적 제어에 의한 노화현상 지연의 가능성이 기대되고, 나아가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운용이 나이가 들어도 가능해 질수 있다는 사실은 기능적 장수의 가능성을 크게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연령의 증가라는 이유로 개체

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리라는 통념을 배제하고, 얼마든지 인위적 노력에 의하여 성취할 수 있는 진정한 기능적 장수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기능적 장수(Functional Longevity)는 노화연구의 목표이다

장수사회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에는 개인 자신을 위한 의식주, 건강, 취미활동, 기호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측면의 제도와 관습이 대상이 될 것이며, 환경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지형, 기후, 습도, 농산물 등의 자연조건은 물론 생활공간 및 공동시설, 시스템 등의 인위적 조건 등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장수와 관련하여서는 너무도 많은 사이버 정보가 만연하고, 근자에는 학술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노화방지 의학이라는 미명하에 부적정한 의술들이 사회 전반에 파급되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장수문화는 바로 장수과학을 토대로 하여 정립되어야 한다.

장수과학이란 고령사회에서 남녀노소 함께 어우러져 건강을 지키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의학, 약학, 식품학, 스포츠학 등을 망라한 총합적이고 연계적이며 실용적·실천적인 과학이다. 장수과학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기본방향은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노화현상과 질병발생과의 관계이다. 노화현상을 질병으로 보려는 시각은 크게 경계하여야 하며, 노화현상의 생물학적 의미를 인지하고 당당한 노화가 부각되어야 한다. 둘째는 죽음과 생체기능장애 또는 지체부자유의 관계이다. 노화에 따라 초래되는 각종 기능장애나 형태적 변화에 대한 본질적 연구를 통하여 기능회복과 형태수복을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는 수명

과 삶의 질의 관계이다. 인간의 궁극적 소망이 수명연장에 있지만, 수명연장이라는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는 복합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는 노화현상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노화현상이 환경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적 또는 전통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다섯째로 이러한 과정을 절대적으로 지원할 권위 있는 기관이 여과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주는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결 어

미증유의 장수 고령시대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노화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전환이다. 종래 노인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부정적 의미를 벗어나, 이제는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른 개인적 변화로서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노화에 대하여 각 개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책임지는 사회를 건설함은 물론, 지역사회도 전통적 사회·문화 패턴에서 벗어나 노인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사회를 위하여 생산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반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여건에 알맞은 미래 고령사회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하여 보다 건강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노인들이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고령인들의 안전(Safety), 문화(Culture), 생산(Productivity)을 보장 및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의 건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보제공, 내용개발 및, 교육훈련을 담당할 국립장수과학연구소의 설립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청소년 휴대전화 콘텐츠 이용

- 학습을 위한 무선 인터넷 콘텐츠 이용은 적고
게임이나 성인물 접속 등 유해환경 노출 위험은 커져-

휴대폰 보급 확대와 무선 인터넷 기술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정보와 오락 등을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 요금 부과 방식이 복잡하고, 전송 속도와 접속 불량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대전광역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 5일~20일까지 이동전화의 무선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특히, 청소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휴대 전화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1) 휴대전화 및 무선 인터넷은 집에서 주 1~2회 이용

휴대전화 및 무선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로 집을 꼽은 응답자가 54.2%였고, 학교 20.0%, 버스 및 봉고는 8.1%이었다.

무선인터넷 주당 이용 빈도는 50.6%가 일주일에 1~2회 정도였고, 일주일에 3~4회 정도 이용자도 13.2%였다. 일주일에 5~6회 정도 이용하는 경우도 5.7%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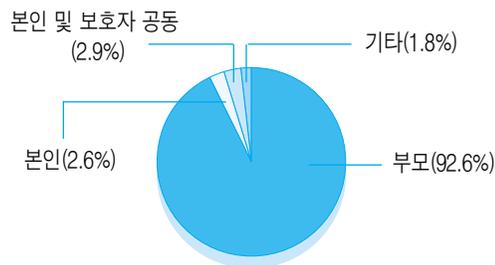
무선인터넷 1회 접속 시간은 대부분

(80.4%) 5분에서 10분 사이였다. 1시간이상 2시간 또는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응답자도 3.7%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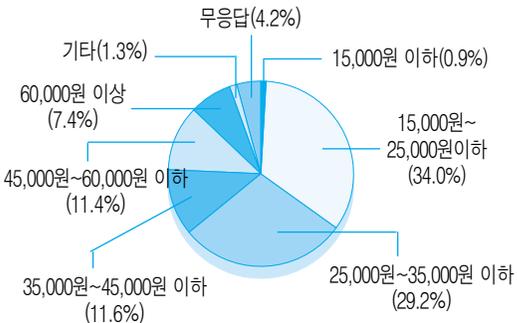
2) 15,000원~35,000원 사이의 이용요금 대부분 부모가 지불해

휴대전화 이용 요금은 대부분 부모(92.6%)가 지불하는 것<표1>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 이용료는 15,000원~35,000원(63.2%)<표2>이 가장 많았다.

<표1> 휴대전화이용요금 지불주체



<표2> 월 평균 휴대전화 요금



3)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는 벨소리 다운과 게임

음악 분야에서는 벨소리 다운이 74.8%로 가장 많았고, 캐릭터는 그림 39.3%, 사진 38.8%를 이용하고 있다. 이메일은 주로 문자메시지(69.7%)를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는 날씨(27.2%)와 생활정보(18.0%)를, 학습은 사전(35.3%)을 찾는 역할로, 동영상은 뮤직비디오(45.8%)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로 꼽았으며 게임 및 노래방은 게임(60.1%) 및 노래방(21.5%)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4) 무선 인터넷 및 콘텐츠 이용 요금은 5,000원 미만이 많아

무선인터넷(데이터 및 정보 이용료) 월 이용요금으로 55.7%가 5,000원 미만을 지불하고 있었고 5,000원~10,000원 미만의 이용요금을 내는 응답자가 18.6%이었다. 콘텐츠 월 이용요금도 62.7%가 5,000원 미만을 지불하고 있었다.

5) 유해정보에 노출된 경우는 불과 6.3%

휴대전화로 성인용 콘텐츠를 접속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불과 6.3%였다. 성인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인증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11.8%가 부모 등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과도한 요금 청구에 소비자 불만 많아

59.0%의 응답자가 휴대전화 및 무선인터넷 이용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휴대전화 및 무선인터넷 관련 불만이 있는 경우 피해 유형<표3>으로 81.9%가 '생각보다 과도한 요금 청구'를 들었다.

<표3> 피해 유형의 종류

항 목	빈도수	백분율(%)
과다 요금 청구	263	81.9
원치 않은 거래 성립 및 취소시 요금 청구	24	7.5
과도한 광고 메일로 인한 총동구매	14	4.4
사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 의심	20	6.2
계	321	100

휴대전화 및 무선인터넷 요금이 생각보다 과다하게 청구된 이유에 대한 인식으로 38.0%가 접속 도중 자주 끊기거나 속도가 느려 이용 시간이 늘어선다고 했다. 34.2%는 접속료 외에 정보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요금체계를 몰라서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7) 휴대전화 이용 불만 대처에 소극적 태도 보여

휴대전화 이용 불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청소년은 불과 36.7%에 불과했다. 이동통신사 및 콘텐츠사업자에 해결 요구(19.6%), 인터넷 사이트에 불만 글 게시(10.6%),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 구제요청(6.5%)등으로 불만의 소리를 냈을 뿐 63.2%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이용 불만에 대한 해결에 만족한 경우도 4.2%에 불과했다.

8) 요금 인하와 기술적 부분에 대한 개선 시급해

휴대전화 및 무선인터넷 운영 주체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56.1%가 요금 인하를 들었다. 20.4%는 인터넷 속도 및 접속 상태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9.7%의 응답자는 다운로드 등 정보 이용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광고메일 차단과 콘텐츠 항목 다양화 요구 등이 포함되었다.

9)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 -

부당한 요금체계 개선과 이용자의 올바른 습관이 중요

휴대전화 요금을 대부분 부모가 지불하고 있거나 부모 몫으로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고, 청소년 소비자 59.0%가 과도한 요금 청구로 인해 휴대전화 및 무선 인터넷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해정보 노출 정도는(6.3%) 미약한 편이었으나, 문제는 성인 인터넷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인증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뉴스와 학습을 위한 무선 인터넷 콘텐츠 이용자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50.6%가 일주일에 1~2회 정도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1회 접속 시간도 2시간 이상 이용하는 응답자도 3.7%나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정과 학교에서 휴대전화 및 무선 인터넷의 이용 일수와 시간을 비롯한 올바른 사용습관에 대한 교육을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이용요금을 부모가 당연히 지불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려야 하며, 부당한 요금체계와 부과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습득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한편, 많은 이용자가 요금 과다 부과 원인을 인터넷 속도와 접속불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업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입증하고 있다.

● 결 론 ●

휴대전화 요금이 청소년층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

은 최근의 일이지만 이용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사용 방식도 음성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 송수신이 중심이 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를 변화시킨다.

과거와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또래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어 자칫 소원해지기 십상인데 휴대전화 보급에 따라 언제 어디서라도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휴대전화 중독증세'를 보이고 잦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해 어깨 및 손목통증을 호소한다는 조사 결과는 학교나 가정에서의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본회 조사 결과에서도 지불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과 요금체계에 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한 태도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와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의 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특히 성인물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해야 한다.

한편, 업체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으로 이익만을 챙기기보다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 사용 방법의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이를 감독하는 정보통신부도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가입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조사,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료제공 : 대전광역시지부>

알아봅시다

여행사 통한 패키지 여행 조심하세요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패키지 여행 중 여행자가 경험한 사고나 질병은, 여행 중 섭취한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교통사고·질병 순이었다. 사고나 질병 발생시 여행사의 초기 대응이 미숙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서 피해가 확대되어 이를 둘러싼 배상 문제 등 여행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본회는 여행사 사고나 질병에 대한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여행중 사고나 질병발생의 원인- 여행자의 준비 소홀과 여행사의 안전 불감증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여행 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여행자의 사전 준비소홀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행사측의 초기 대응이 미숙한 데도 원인이 있다.

특히 일부여행사는 위험한 여행 일정에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거나 응급 상황에서도 가이드와 즉시 연락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는 여행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여행사(가이드)의 안전 불감증이 전반적으로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패키지 여행중 소비자 피해 사례

① 소비자가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여행사(가이드)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입증 자료(의사소견서, 치료비 명세서가 적힌 영수증, 여행사(가이드)의 확인서 등)를 확보하지 못해 귀국 후 여행사와의 보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한 경우도 있다.

② 여행사 중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다 하더라도 여행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을 제공하지 않아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 여행할 때는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여행 전>

- 여행자의 건강이 해외여행 일정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는 상태인지 의사에게 반드시 체크 받는다. 특히 노약자는 더욱 주의한다.
-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사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명 등을 확인 한다.

- 여행사에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 가입 보험회사명, 보상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반드시 보험약관을 받아둔다. 여행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한 보험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
- 여행사에 여행지가 위험한지 여부, 안전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문의하고 준비한다.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행지 현지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알아둔다.

<여행 중>

- 여행과정에서 위험상황이 예측될 경우 여행사(가이드)에 주의 및 적정 조치를 촉구한다. 또한 여행사(가이드)의 안전조치에 잘 따른다.
- 여행 중 사고·질병이 발생하면, 즉시 여행사(가이드)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우선, 의사에게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의사소견서와 치료비 명세서가 적힌 영수증을 수령하여 귀국 후 보험처리에 이용한다.
- 여행사(가이드)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해 둔다. 예컨대 여행사(가이드) 확인서나 사진자료 등을 챙겨둔다.

<여행 후>

-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여행사에 즉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 여행사에서 보험 처리가 지연되거나 보상을 회피할 경우 상세한 피해 내용과 입증 자료 등을 갖추어 소비자고발센터나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한다.

소비자의 소리

■ 2종으로 결제된 상품대금 환급처리 요청

내용 고진희(서초구 서초3동) 씨는 2005년 월 15일 명동에 있는 K매장에 가서 7만5천원짜리 가방을 사면서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결제 2만5천원을 마그네틱 손상으로 인하여 수기 작성하였다. 1주일이 지난 후 수기 작성이 접수가 안된다고 하여 2월 22일 매장에 가서 다시 카드결제 하고 왔다. 2개월이 지난 4월 수기로 작성했던 카드대금이 또 청구되어 여러차례 방문하여 이의제기 하고 전화로도 항의했으나 2종 결제된 것에 대한 사실을 부인한다고 구제요청 하였다.

처리 KB카드 이용내역 조회결과 2005년 1월 25일 2만5천원은 이용기간이 2005년 1월 7일~2월 6일까지 결제된 금액이고 2005년 1월 15일 2만5천원은 이용기간이 3월 7일~4월 6일까지 이용한 내역서 상단에 표시가 확인되어 해당 가맹점에 알려 사실 입증되었으므로 2종 납부된 것 2만5천원을 즉시 계좌입금 처리하여 주었다.

■ 여행일정 잘못 알려주어, 취소 요구에 여행경비 환급 거부

내용 김경남(양산시 북부동) 씨는 올빼미 2박 4일이라는 여행계약을 여행사와 2명 전화로 계약하고 대금 7십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였고, 2005년 5월 4일 새벽1시에 인천공항발 동경행 항공편을 이용키로 하였다. 5월 2일 확인차 전화를 하니 여행일정이 3일 새벽 출발이며 5월 2일 자정까지 인천공항에 나와야 한다고 하였다. 준비가 되지

않아 계획을 하루 앞당기기가 불가능하여 지출된 경비 환급을 요청하니 소비자가 일정을 잘못 알 아들었다고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처리 해당 여행사의 대표는 3일 새벽 출발을 3일 새벽 집결로 소비자가 오인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계약시 유선상으로 일정 안내를 한 후 계약내용에 대하여 따로 고지한 사실이 없음을 본회에서 지적하니, 2일 오전에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입증 되지 않고, 이후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여행상품을 판매한 업체의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행일정 착오에 대한 여행사측의 과실 없음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설득, 여행경비 7십8만원 전액을 환급조치 하였다.

■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가 심해, 보수 요청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내용 신계덕(대전시 서구 용문동) 씨는 아파트 6층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최근 안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벽 윗부분에 얼룩이 생겨서 확인한 결과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집주인에게 누수 사실을 통보하고 수리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어 오다가 이제는 윗층과 직접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윗층에서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며 관리사무소에 수리요청 하자고 하는데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처리 집합 선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누수 배관이 개인소유인 전유부분인지, 입주인 공동소유개념 공유부분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 즉 누수가 되는 배관이 전유부분 배관(지선)이면 윗층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공유부분 배관(간선)이면 배달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 수선충당금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 누수와 같은 중요한 하자는 소모성이 아닌 반영구며 설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는 집주인의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주인의 책임하에 하자 보수 하도록 처리하였다.

■ 보온병, 보온기능 표시광고보다 떨어져 교환 요구

내용 현영희(제주시 이호동) 씨는 2005년 3월 25일 그릇도매상에서 현금 2만8천원을 지불하고 1l의 용량의 보온병을 구입하였다. 집에 오자마자 끓인물을 넣고 3시간 지나 확인하니 다른 보온병에 비해 보온효과가 없어 보온병 표면에는 12시간 경과 후에도 70°로 유지된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결과는 너무나 달라서 업체에 항의하니, 소비자가 뚜껑을 잘못 닫았거나,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교환거부 하였다.

처리 본회에서 해당 보온병을 회수하여 타업체 동일용량의 보온병과 실험(사용테스트)을 해보았다. 끓인물을 넣고 5시간 경과 후 온도를 확인한 결과 70°가 채 되지 않았고, 타업체 제품은 90°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판매처인 그릇도매상과 제조처인 아폴로산업으로 알리고 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환처리 하였다.

■ 중고차 무사고 차량이라 했는데 사고차량임이 판명, 환불 요청

내용 김연수(경북 김천시 감문면 금곡2리) 씨는 2005년 4월 26일 RV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200-식 카니발을 640만원에 구입하였다. 차량 성능검사 기록부에 “사고 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특약사항에 “본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며 사고경위 발견시 환불조치 하겠음”이라고 명시해 주었다. 등록 후 정비공장 3곳에 차량사고에 대해 의뢰하였다. 3곳 사고가 났었던 차량이라고 하였으나 확인사 발급은 거부하였다.

보험회사 측에서 확인한 바로는 2003년 2004년 두차례 사고가 났던 차량으로 2백3십8만8천원 지불되었다고 하였다. 업체 측에 항의하여 환불요구 하였으나 어느 부위, 어떤 부품이 교체되었는지 사고차량 증명서 제출하면 구입가에서 100만원 공제 후 환급해 주겠다고 하여 본회에 상담의뢰 하였다.

처리 구입처인 RV자동차상사에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단순부품교체는 사고로 인정할 수 없고 차량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업체가 책임이 있다며 환불을 못 해준다고 하였다.

차량성능점검기록부 교부한 업체인 한국정비공장에 전화하여 보험사의 사고이력에 의하며 조수석 앞바퀴, 하체부속교체, 바퀴 뒤쪽 문짝 및 사이드실교체, 차체 우측 앞부분 교체 수리비용을 2,388,000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단순부품교체로 볼 수 없음을 인지시켰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허위작성 교부 시 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등록취소가 됨을 인지시키고 환불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자는 정비공장의 자동차 수리능력이 탁월하다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였다. 판매처와 협의한바 제품 반품하고 차량대금 환불키로 처리하였다. <곽정자 / 본회 소비자상담실장>

보험금 청구대 기입증서없어도 된다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앞으로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내지 않아도 되며, 수익자에 국한됐던 보험사고 통지의 무자도 계약자로까지 대폭 확대됐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보험업법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돼 각 보험사들은 다음 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해야 하며, 실제로 지난달부터 약관을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로 보험증권이 포함돼 있었으나 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감안,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없도록 했다. 또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자를 기존의 수익자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가운데 아무나 보험사에 통보해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이는 수익자가 사고 대상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의 책임 개시 시점도

확대돼 이전에는 자동이체의 경우 자동이체로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 때, 신용카드는 매출이 승인된 때를 책임 개시 시점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에 책임이 시작되도록 했다.

보험증권은 보험가입증서, 약관대출은 보험계약대출, 책임(담보)은 보장, 부리이율은 적립이율, 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납입최고는 독촉 등으로 바뀌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관 개정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도 구비서류에서 보험증권 폐지 등은 혜택은 똑같이 적용받으므로 보험증권이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5. 2)

민간 자격증 허위·과장 광고 주의하세요

“민간 자격증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최근 취업난을 틈타 각종 협회나 단체 명의를 민간 자격증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각종 민간단체들이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나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해, 값비싼 교재 구입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들 민간 자격증 대부분은 취업 또는 창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면허 성격의 자격이 아닌 단순 능력 인정형 자격이며, 아직은 사회적 공신력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단체들은 민간 자격들이 조만간 국가공인을 받게 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지만, 국가공인을 받기가 쉽지 않고 공인을 받더라도 공인 이전에 얻은 자격에 대해서는 공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격을 따기에 앞서 해당 자격증이 국가 자격인지 민간 자격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교재 값이 비싸거나 학원 수강을 강요하는 민간 자격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격 관련 문의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센터(02-3485-5346), 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연구팀(02-3460-3316),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02-2100-6475), 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7)

〈한겨레, 5. 3〉

철도요금 출퇴근시간 비싸진다

철도요금 출퇴근시간 비싸진다 앞으로 고속철도(KTX)와 일반철도 요금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 더 비싸지는 대신 손님이 적은 정오 무렵에는 싸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시간대·좌석·노선·상품 등에 따라 고속철·일반철도 요금을 차등화하는 ‘철도공사 경영개선 및 고속철도 활성화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건교부는 철도공사가 지난 4월부터 운영중인 탄력적 수익관리시스템인 YMS(Yield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해 시간대·좌석·노선·상품별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해 공석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승객이 많은 주말이나 평일 출퇴근 시간대 요금이 다른 시간보다 비싸질 예정이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정오 안팎 시간대에서는 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선 장항선 등 승객 이용률이 저조한 노선들은 기존 요금보다 다소 싸질 수 있으며 앓은 좌석이

출입 문 근처에 있을 땐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인기가 많은 관광열차는 요금이 다소 올라가겠지만 수요가 떨어지는 관광열차는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매주 944회 운행되는 KTX 운행편수를 10월께부터 1060회로 증편하고 수송 원가의 58% 수준인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5. 11〉

“인터넷 대출광고 속지마세요”-금감원 불법 유사금융 378 개사 적발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무수히 실리는 ‘아파트 신용대출’, ‘연체대납’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이용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될 전망이다. 이런 광고의 대부분이 고리를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거래에 속해 경찰의 단속대상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금융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를 실시, 불법 유사금융업체 378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 주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제보와 인터넷·생활정보지 광고내용 등을 토대로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적발된 378개사중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금모집 업체가 24개사, 고리이자 수취 및 신용카드 할인 등 사금융업체가 354개사다.

사례를 보면 서울 모업체의 경우 러브호텔의 입·퇴실을 자동화한 무인시스템 및 건강침대를 투자자가 구입·임대하는 형태로 투자하면 2년간 186%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인천 모 업체는 정보지에 상호없이 전화번호만 명기한 채 ‘연체대납’, 아파트 추가대출’, ‘당일 신용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법정이율 월 5.5%를 초과한 8%의 고리이자를 받거나 신용카드를 불법 양수도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등록이 돼 있더라도 모든 거래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5. 12〉

건강기능식품 치료효과 논란... 의학 단체 "대부분 근거 불충분"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상당수가 질병 치료 효과가 미약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보완요법 70종을 분석한 뒤 6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다. 그 결과 최상등급인 '권고'에 해당하는 품목은 단 한 종류도 없었다.

두 번째 등급인 '권고 가능'에는 유산균(급성감염성 설사 치료 시), 비타민A(홍역), 마그네슘(천식), 태극권(균형감 상실) 등 4종류가 뽑혔다. 이어 '권고 고려'에는 바이오피드백(고혈압), 은행잎(절름발이), 글루코사민(골관절염) 등 15종류가 뽑혔다.

위원회는 나머지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 (9개), '비권고' (8개), '근거 자료 불충분' (34개) 평가를 내렸다. 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글루코사민의 경우 지난해 '대한보완대체의학회'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3등급인 '권고 고려'를 받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고 세계적으로도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 왜 '권고 고려'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번 조사가 12명의 의사와 5명의 사서, 자문위원 5명 등 22명에 의해 문헌 연구로만 이뤄진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문헌이 많지 않은 인삼, 클로렐라, 키토산, 동충하초 등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건강식품에 대한 평가가 제외된 것.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분석 도구를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5. 9)

기생충 감염 33년만에 증가세... "민물고기 날로 먹는 탓"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3.67%로 3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

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실시한 '제7차 전국 장내 기생충 감염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만37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결과 한 종류의 기생충이라도 감염된 사람은 178만여 명(3.67%)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997년 2.4%였던 6차 조사 결과보다 조금 늘어난 것. 1971년부터 5~7년 간격의 전국조사가 시작된 이래 감염률이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을 때 몸속으로 들어오는 '간흡충(간디스토마)'의 감염률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하천에 인접한 지역에서 간흡충 감염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물고기와 조개를 통해 감염되는 '요코가와흡충' 감염률도 함께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민물고기를 날로 회쳐 먹는 식습관이 문제"라며 "감염률이 높은 편충, 간흡충, 요코가와흡충, 요충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성별로는 남성 감염률이 3.2%로 1.6%인 여성보다 2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농촌

감염률이 6.8%로 3.1%인 도시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동아일보, 5.11)

축산가공품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햄·소시지·우유류 등 7가지 축산물가공품에 오는 9월부터 열량, 지방, 단백질 등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렇게 되면 '저지방', '저칼로리' 등 제조회사의 일방적인 광고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살 수밖에 없던 관행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재료로 축산물가공품을 만들 경우에는 주재료 외에도 사용된 원재료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조제유류만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햄류·소시지류·우유류·발효유류·가공유류·아이스크림류·분유류 등에도 영양성분이 표시된다. 열량·탄수화물·단백

질·지방·나트륨·식이섬유·칼슘 등의 성분 함량이 하루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과 함께 표시된다.

또 지금은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만 표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사용된 원재료를 모두 표시하게 된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포장육 및 수입육의 경우 안심·목심·앞다리 등 부위와 함께 생산된 도축장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고 달걀도 포장 판매할 경우는 생산농장·반품 연락처를 반드시 적게 된다. (경향신문, 5.12)

농림부, 친환경 농산물 3개로 단순화

내년부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종류가 현행 4개에서 3개로 단순화된다.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친환경 공식인증 대상도 농산물 생산자에서 생산자와 유통업자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에 고한 뒤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유기농산물 등 4개로 분류돼 있는 친환경 농산물 중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의해 구분되는 전환기유기농(1년 이상)과 유기농산물(3년 이상)이 '유기농산물'로 통합된다.

또 종전에는 농산물 생산자에게만 친환경 인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유통업자들도 인증을 받은 뒤 친환경 농산물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친환경 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시키다 적발돼 인증이 취소되면 1년 동안 인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한국경제, 5. 15)

“지나친 다이어트 퇴행성관절염 유발”

요즘 여성 대부분은 날씬한 몸매를 가꾸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루 세끼를 제대로 먹으면서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다.

하지만 상당수가 세끼 중 한끼는 아예 먹지 않거나 나머지 식사도 영양불균형 식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처럼 굶었을 때 많은 여성들이 무심코 시도하는 다이어트가 지나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퇴행성관절염을 일찍 부르는 원인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경각심을 주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강동가톨릭병원(www.catholichospital.co.kr) 장종호 원장은 2003년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조기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 받은 여성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굶었을 때 주기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 여성의 나이는 30대말~45세(평균나이 41.2세)로 일부 여성 환자의 경우 일반인들은 무릎관절 건강이 왕성한 38세 때 이미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기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은 128명 중 93명(72.65%)이 ‘젊은 시절 몸매 유지나 특정한 이유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 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골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영양과 운동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이번 통계로 미루어 퇴행성관절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조기 골다공증의 상당한 원인도 다이어트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5. 2>

“2009년까지 영아보육시설 3천 35개 추가 필요”

여성부는 2009년까지 전국 235개 시·군·구 중 188개 지역에 정원 30명 규모의 영아보육시설 3천35개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여성부는 이날 국회 여성위원회 ‘보육·교육실태조사 간담회’에 제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서 2004년 현재 보육시설설치 현황과 2009년까지 영·유아 인구추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규모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또 97개 시·군·구에는 정원 55명 규모의 유아보육시설 734개를 설치해야 하며, 정원 60명 규모 유치원 1천204개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부는 “추가로 확충돼야 하는 보육시설 가운데 50%를 국·공립 보육시설로 설치하고 나머지 50%는 자연증가되는 민간보육시설로 충족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국·공립보육시설 및 유치원 선호도가 각각 56%, 57%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5. 6>

여성 근로자 절반, 월 90만원 못 받아

국내 여성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노동연구원 강승복 연구원이 2004년 8월을 기준으로 저임금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44.3%가 기준치인 86만700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용직 여성과 기혼 여성의 저임금 비율이 매우 높게 특징이다.

연령별로는 청소년층과 고령층의 저임금 비율이 높은 가운데 50대 이상 여성의 절반은 저임금에 속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종별로는 제조업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순이었다. 또 절반 이상이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반면 남성 근로자는 12.7%가 저임금 근로자로 분류돼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남녀 모두 저학력일수록 저임금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의 경우는 대학원 졸업자 중 10%가 월 90만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순복 연구원은 “고임금 산업과 직종에서 여성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5. 8>

50세 이상 엉덩이·손목 골절 5년 전보다 2배 늘어

50세 이상 성인 중 엉덩이와 손목 골절환자가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골다공증 환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다공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병원 내과 신찬수 교수와 아주대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팀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통상 여성은 폐경 뒤 여성호르몬 감소로 용골세포가 증가해 잘 생긴다. 또 남성은 고령, 남성호르몬의 감소, 유전, 흡연과 관련된다.

노인 골절은 개인의 삶의 질과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20%는 반년 이내에 사망하며, 40%는 평생 누워지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인 골절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갱년기 장애, 골다공증과 골절 치료비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액수는 2795억원이다. 본인 부담금을 포함하면 골다공증 관련 의료비 지출은 연간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팀은 골절환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인구의 노령화와 골다공증 환자의 증가 ▶운동 신경이 떨어지는 노인인구의 증가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증가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선 성장기부터 뼈의 재료인 칼슘 섭취를 많이 하면서 체중이 실리는 걷기, 등산, 조깅 등의 운동을 매일 20분 이상씩 할 것”을 조언했다. <중앙일보, 5. 17>



북한 어린이들의 명절 국제아동절



북한 어린이 춤

북한에서 5월5일은 평소와 똑같이 학교에 간다. 그렇다고 어린이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니라 6월1일 국제아동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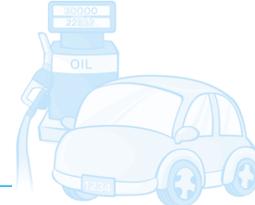
북한도 분단이전까지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의 색동회에 의해' 제정된 5월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으나 해방과 함께 남북으로 나뉘면서 북한에서는 국제아동절이 생겨났다. 이날 평양에서는 국제친선연환모임 등 각종 국제아동 친선행사가 열린다. 국제아동절이라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

녀들과의 친선행사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시 된다.

국제친선행사에 참가할 북한 어린이들은 김정숙 탁아소, 창광유치원 등 1급 교육기관에서 뽑히며, 외국 어린이들과 함께 만경대유희장 (놀이공원)에서 각종 체육경기와 예술공연 갖는다. 지방에서 가장 일반적인 행사는 운동회인데, 달리기, 밧줄당기기, 놀이감따기, 통일기차놀이, 글자붙이기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된다.

그중 수십 년간 아이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독차지해 온 것은 자전거 경기다. 어린이들 가운데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어린이들로서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신나는 일이다. 자전거 실력보다는 자전거를 가진 어린이들이 대표로 출전하며 같은 자전거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퀴가 클수록 1등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히 탁아소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된 이색행사로 우량아선발대회가 있다. 각 구역 산하 탁아소에서 선발한 첫돌을 맞은 어린이들의 몸무게를 달아 3등 안에 들 경우 장난감, 그림책 등의 선물을 준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사탕, 과자 등 특별배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으로 행사규모가 많이 줄었으며 특별배급도 평양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어린이날 행사가 예전만 못하다고 한다. ■



고유가 시대의 경제운전법

'지구의 날' 행사일인 지난 4월 24일 대학로에서 백만인 에너지절약 실천 약속을 목표로 하는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 백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이 열렸다.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및 시민 모두가 함께 나선 이번 캠페인에 본회도 동참하여 에너지절약 실천을 약속했다. 이에 본회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관리」에서 고유가 특집으로 다룬 '에너지절약 및 안전을 위한 경제 운전법'을 발췌해 에너지 절약 방법을 소개한다.

- 1 타이어의 규정 공기압을 유지하자**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의 마모 및 주행안정성, 연비, 타이어 파손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운행을 위해 적정 공기압 유지와 정기적인 공기압 체크가 필수적이다.
- 2 가급적 에어컨 사용은 자제하고 창문을 열고 주행하자**
운전자는 자동차의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외부에 액세서리 등을 부착하지 말아야 하며 아주 무더운 날이 아니라면 창문을 열고 주행하는 것이 경제운전에 도움이 된다.
- 3 가능하면 정속 주행을 한다**
과속을 하지 말고 속도 변화 없이 정속으로 주행하면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다.
- 4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은 연료낭비의 원천이다.**
소형자동차(1,500cc) 1대의 자동차가 5분간 공회전을 하면 약 100cc가 소모되고 25일간 공회전을 하면 약 2.6ℓ의 연료가 소모된다.
- 5 속도 증가는 연료 소모의 지름길**
가속페달을 밟으면 소모되는 연료의 양이 많아지며 급하게 가속 및 감속하게 되면 불필요한 연료를 낭비하게 된다.
- 6 자동차 속도에 맞춰 적절한 기어 변속을 하라**
엔진의 회전수를 낮추기 위해 급하게 기어 변속을 하면 오히려 연료가 낭비된다. 기어 변속은 자동차 속도, 도로기울기, 교통량 등 제반여건에 맞춰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 7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기순환은 내부 흡입모드로 설정하고 오르막길이나 정체 도로에서는 에어컨을 꺼주며, 에어컨 콘덴서를 청소하고 컴비네이션 에어 필터를 교체해 주는 한편 목적지 도달 전에 미리 에어컨을 꺼주면 연료소비를 줄일 수 있다.
- 8 승용차 함께 타기를 생활화하자**
소형자동차(1,500cc)에 1인(65kg) 승차 시 표준 연비를 14.1(km/ℓ)로 해서 한 사람이 141km를 주행하면 10.4ℓ가 소모된다. 반면 3사람이 나홀로 주행할 경우 31.2ℓ의 연료가 소모된다.
- 9 가속은 천천히 부드럽게 하라**
- 10 불필요한 급출발 운행을 하지 마라**
- 11 불필요한 급브레이크 사용을 삼가라**
- 12 정기적인 자동차 점검은 연비 향상의 지름길**
- 13 과다한 전기사용은 연료소모를 부추긴다**

금융거래! 아는 만큼 보인다

최근 과도한 부채증가, 신용카드의 남용 등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올바른 개인신용 관리 요령 및 금융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융분야별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알고하면 유익합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해 금융이용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건전한 신용사회를 구축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했다. 이번 달은 책자의 내용 중 기타금융거래 시 주의할 사항들을 발췌했다.

사금융거래시 유의할 사항

사채업체란 무엇인가?

은행 등 제도권금융회사와는 달리 금융관련 법률에 의해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는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개인사업자이다.

특히, 2002년 10월 27일 대부업법이 시행된 후 각 시·도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업체를 대부업자라 한다.

※ 금전대여를 업으로 하면서 매월 말 월 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대부거래 상대방이 21인 이상, 또는 광고행위를 하는 자는 모두 대부업자 등록이 의무화되어있다.

사채 이용 시에는 이렇게 하세요

■ 등록업체 이용

각 시·도에 대부업자로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대부업 등록 대상인 업체는 연 이자율이 66%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자율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나 각 시·도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02-3786-8655~8)로 신고하면 된다.

■ 대표이사 명의 영수증 필히 보관토록

채무자는 돈을 빌릴 때 맺은 계약서나 약정서를 반드시 받아두도록 하고, 돈을 갚았을 때는 대표이사 명의로 된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백지어음의 제공은 과도한 어음금액을 기재하여 청구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백지어음의 제공을 피해야 한다.

■ 협박 있을 때 녹취 등 증거물 확보

사채업자로부터 폭력·협박을 받거나 채무와 관계없는 제 3자에게 채무변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녹취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사법당국이나 각 시·도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사채업자가 고의로 대출금을 받는 것을 피할 경우에는 채권자(사채업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 확인 필수

대출 중개업자를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를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야 한다. 또한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사법당국이나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한다.

또 가급적이면 광고나 영업소의 객장에 연이자율, 연체율, 기타수수료 유무 등에 대하여 표시하고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신용카드 사채업자에게 맡겨서는 안돼

신용카드 연체대납대출 시 신용카드를 사채업자에게 맡겨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도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이미 사채업자에게 카드를 맡겨 부당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사용정지 요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신청 시 통장 및 도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

■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연체대납 및 카드할인(일명 “카드깡”)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업체명,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관할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으로 신고한다.

※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 02) 3771-5950~2

〈자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의료이용시 불편사항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의료이용가이드'를 지사 민원실과 소비자단체에 배포, 캠페인시 공동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도 국민들의 올바른 의료이용 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안내서 내용을 발췌해 의료이용 절차상 알아두어야 할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다툼이 빈번한 사항들

■ 입원보증금과 진료 거부

- 법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상급병실료

상급병실료는 병실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병상 이상의 병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상급병실료는 병원마다 계산 기준과 금액이 다르다.

■ 선택진료

선택진료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진료비가 부과되는 등 진료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도리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우편, FAX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조치해 준다.

■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하였으나 불응시 일반환자로 전환여부

만약 환자가 의사의 퇴원 권유에 불응할 경우, 의료기관은 보험공단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 산모 '무통주사' 비용

2005년부터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산모에 대해서는 분만 전 통증조절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무통분만(경막외 마취)을 보험급여하고 있다. 다만,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후 무통주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보험수가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일부 요양기관에서 일반수가로 과다하게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상담하면 된다.

의료 분쟁 또는 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제 절차

■ 병의원 이용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요?

의료 이용상 불편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도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 상담신청방법

- 인터넷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전 화 : 전국 공단지사(가입자보호담당)
☎ 국번없이 1588-1125
- 한국소비자 보호원(www.cpb.co.kr)
☎ 02)3460-3000)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소비족'이 증가하고 있다

1~3개월 내에 쓰던 IT제품을 되팔아 최신 모델로 교체하는 소비자 증가

정보산업인 IT(Information Technology)시대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소비문화가 생기고 있다.

휴대전화·PDA·MP3플레이어 등과 같은 최첨단 IT제품에 대한 소비행태에서 새로운 소비문화를 엿볼 수 있다. 소비층이 대부분 IT관련 기기에 관심이 많은 25~35세의 젊은 남성 직장인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다양한 연령층이 형성되고 있다.

얼리어답터(earlyadopter)와 헝그리어답터(hungryadopter)의 신소비족 등장은 새로운 형식의 소비문화 형태를 말해주고 있다.

얼리어답터(업글러)란 사회학자들이 붙인 말로, 제품수용주기에서 가장 먼저 제품을 사는 첫 번째 소비자군으로 신제품 구입에 열을 올리는 소비자를 말한다. 몇 달만 지나도 새 모델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 되면서 얼리어답터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디지털 노마드족'은 구입한 제품을 사용한 다음 곧바로 팔아버려 한 달이 멀다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는 신소비족을 일컫는다.

최신 제품만 고집하는 신제품 마니아인 '얼리어답터'와 비교해 '헝그리어답터'는 구비한 물건을 잠시 사용한 뒤에 되팔아 그 돈으로 다시 중고 물건이나 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중고품에 대한 인식 전환과 중고시장 활성화시켜

이런 신소비족의 등장은 중고품에 대한 인식

전환과 중고시장의 활성화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헝그리어답터 덕분에 중고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한다. 보통 '중고'라 하면 '남이 쓰던 헛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만, IT기기는 사용한 기간에 비례해서 제품의 수명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고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고장터를 운영하는 업체와 중고품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동호회로 중고시장의 활성화와 유통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알뜰 소비족인가 구매 중독자인가

'얼리어답터'나 '헝그리어답터' 등의 신소비족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최신 IT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다를 뿐이다. 쓰던 제품을 팔아서 만든 돈에 조금 더 보태어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는 것을 오히려 알뜰 구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소비족의 등장으로 저마진 중고 IT기기에 가치를 부여해 IT 관련 산업에 도움을 주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소비자가 품질과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보다는 무조건 신제품을 구입하려는 충동구매로 인한 '구매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제품만 고집하거나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고파는 소비행태에 대해 IT제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웃이 좋은 가구를 새로 구입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



남은 생의 첫날

앞보다 먼저 꽃을 보였던 노란 산수유 개나리랑, 새색시 치마 빛깔의 진달래를 이어 새하얀 백목련과 공단같이 기품 있는 자목련 꽃철은 어느새 지나갔다.

이제 모란과 장미가 피기까지 세상은 나무마다 연두색 잎들이 날로 새록새록 돌아 들에서 산에서 아파트의 작은 화단에서 앞 다투어 고단한 눈길에 청량감을 주고 있다.

아침 커피 잔을 들고 바라보던 건너편 호수공원의 연록색으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나는 꽃이 진 금낭화 화분을 바라본다.

초롱같은 보라색 꽃을 조롱조롱 매달고 있던 금낭화는 초롱의 불을 끄듯이 꽃을 다 떨어뜨렸다.

둘레가 뚜렷치 않은 쓸쓸한 마음으로 빈 꽃대를 잘라내고 있다고 나는 A에게 말한다.

궁금하던 A의 감기는 아직도 그대로라고 한다.

A는 따끔따끔 목이 더 아프고 담도 생기고 머리까지 아프다고 푸념을 한다.

실은 나라고 다를 게 없는 상태이다. 일주일 넘겼는데도 감기는 나를 놓아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프단 말을 하기 싫어 카운슬러인양 A의 긴 말을 들어준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테니까.

A의 울적하고 노기 띤 토로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대한 앙갚음이 배어 있었다. 놀랍게도 다른 사람 아닌 자기 동생에 대한 울분을 토해내는 것이었다.

“고마움을 모르는 게 인간이야? 그것도 형제간에 고마운 줄 모르고 도리어 흉을 보고 꺾준 돈의 액수를 속이는 게 사람이냐 말이야?”

“——?”

그들 자매간에 오간 금전 문제를 나는 알지 못 한다. 들은 것만으로 확실한 내용파악을 한 것도 아닐뿐더러, 나로서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글쎄 말야——” 할 따름이다.

A는 계속 흥분하여 목소리가 점점 높아갔다.

기침도 나고 목이 따끔거린다면 그만 진정해, 하고 나는 말한다.

“베폰 것으로 족하잖아. 더구나 동생이라면서——?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 해도 어찌겠어? 도움을 준 걸 몰라라한 대로 동생하고 싸울 거야?”

“싸워야지, 싸워서라도 분한 걸 풀어야지! 급하다고 죽는소리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액수를 속이다니, 말이 되느냐고?”

“그냥 줬다고 생각하고 그만 뒤, 배반감에 사로잡혀 앙심을 품고 있으면 A야말로 그 분한 마음에 결박당하게 되는 거야.”

“난 못 참아.”

“도외시 해. 잊어버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금전 문제이고 더구나 친동생이라면서——”

“남이면 욕 한 번하고 말면 되지만, 이걸 남도 아닌 친동생 년이니까 더 분한 거라고.”

돈이 무엇이기며——, 머리가 아프고 착잡할 뿐이다.

앙갚음 할 마음을 버리는 건, 즉 용서하는 것이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동생을 도와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A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과 평화가 아니냐는 말에 A는 비로소 잠잠해 진다.

“그 사람을 보는 가장 좋은 거울은 오래 사귄 친구—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왜 그래? 두 번 다시 그 얘기하기 없어야. 난 싫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 나는 웃음을 섞어 문득 말한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셔?”

“생일——, 아직 아니잖아?”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날이라고. 생일은 매년 한 번씩 오지만——”

“아휴, 답답해. 무슨 날인데 그래?”

“오늘은 우리들 ‘남은 생의 첫 날’이라고.”

“——?”(우리들, 남은 생의 첫 날?)

전선을 타고 침묵이 흐른다. 정말 착잡한 건 그 말을 꺼낸 나인지도 모른다.

“날씨 좋은데 시시한 생각 털어 버리고 대학로에서 만나자고. 원고는 막히고, 그러지 않아도 오늘 전화하려고 했어.”

“감기 덧나면?”

야단맞은 아이처럼 A는 꿈무늬를 빼본다.

“윤석화 연극 보러 가자고. 굉장한 작품이야. 영화화되어서 아카데미 감독상과 주연 여우상을 수상한 작품이야.”

그 날 오후 우리는 소극장 <정미소>에서 “위트”를 보았다. 그리고 2시간 후에 젖은 눈으로 정미소를 나오며 우리는 손을 잡았다.

삭발한 윤석화의 진지하고 흡인력 있는 열정적인 연기는 단연 압권이었다.

죽음, 그리고 소중한 삶에 대한 감동과 윤석화가 뽑는 여운에 사로잡혀 먼 하늘가를 바라본다.

내 생애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연극 중 단연 으뜸이리라.

남은 생애 첫 날 본 연극이라면, 그 무엇인들 잊을 수 있을까마는——.

우리는 JAVA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5월의 노을이 아름다웠다. <김영희/소설가>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했고, 1961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단편소설 <우기의 문>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장편소설 <행복의 빈 상자>(1975), <우리가 날개를 가졌을 때>(1992), <창밖의 사과나무>(2000)를 비롯해 창작집 <고독한 축제>(1968), <이브의 여로>(1995), 수필집 <내 영혼의 아침>(1978), 콩트집 <우리들의 이별> 등 많은 작품을 출간했다. 한국소설문학상('87), 조연현문학상('89), 만우 박영준문학상('92), 국제펜문학상('00)을 수상했으며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이사, 한국문인협회 이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비용은 저렴, 건강은 만점!

나른한 봄이 지나가고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건강한 여름나기를 준비할 때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있는 요리를 소개한다.

피로한 가족에게 간단하면서도 맛깔스러운 요리로 사랑을 담아보자.

삼겹살무말이찜



재료 > 무 100g, 삼겹살 400g, 쪽파 10대, 소금·후추 약간씩, 찜 양념장(고춧가루 1큰술, 간장 2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1작은술, 다진 마늘 1큰술, 청주 1큰술, 통깨 약간)

<만드는 방법>

- ① 무는 사방 2cm, 5cm 길이로 썰어 소금을 뿌려 살짝 절인다.
- ② 삼겹살은 7cm 길이로 썰어서 소금과 후추로 밑간한다.
- ③ 쪽파는 깨끗이 다듬어 씻어 무 길이로 썬다.
- ④ 분량의 재료를 섞어 찜양념장을 만든다.
- ⑤ ②의 삼겹살을 편 다음 무와 쪽파를 올려 놓고 돌돌 만든다.

⑥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⑤의 삼겹살무말이를 굴러가면서 익힌다.

⑦ 냄비에 익힌 삼겹살무말이를 담고 ④의 양념장을 부어서 약한불에서 찜다.

⑧ 간이 무 속까지 깊게 배고 윤기나게 찜지면 그릇에 담아낸다.

두부미역조림

재료 > 두부 1모, 불린 미역 1컵, 소금 약간, 물 1/2컵, 조림양념(간장 3큰술, 고춧가루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다진 파 1큰술, 깨소금·참기름 1/2큰술씩), 식용유 적당량

<만드는 방법>

- ① 두부는 사방 4cm 크기로 도톰하게 잘라 소금을 솔솔 뿌려 잠시 두었다가 물기를 닦아내고 식용유를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굽는다.



- ② 분량의 재료를 섞어 조림양념을 만든다.
- ③ ①에 조림양념을 끼얹고 물을 부어 끓이다가 국물이 끓으면 중간 불로 줄인 다음 불린 미역을 넣어 조린다.
- ④ 두부에 간이 배어들면 불을 끄고 그릇에 담아 낸다.

돼지고기똥장구이



재료 > 돼지고기 400g, 중국부추 100g, 양파 1개, 붉은고추 2개, 식용유 4큰술
* 양념장-된장 2큰술, 마늘 2쪽, 양파 1/2개, 진간장 1큰술, 청주 1큰술, 설탕, 참기름

<만드는 방법>

- ① 돼지고기는 등심으로 준비해 0.5cm 두께로 얇게 저며 썬다. 중국부추는 줄기를 가지런하게 하여 4~5cm 길이로 썰고 양파도 채썰듯이 썬다. 붉은 고추는 어슷썬다.
- ② 돼지고기에 된장 양념장을 넣고 골고루 섞어 20분 정도 재어 둔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재어 두었던 돼지고기를 넣어 앞뒤로 뒤집어 가며 먹음직스럽게 구워 낸다.
- ③ 다시 팬을 뜨겁게 달궈 양파, 붉은 고추를 볶다가 중국부추도 함께 넣어 센 불에서 재빨리 볶아 그릇에 야채와 돼지고기를 함께 담는다.
* 돼지고기의 살점은 되도록 얇게 썬다.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구고 불을 강하게 하여 재빨리 구워 낸다. 이처럼 빨리 속까지 완전히 익

혀야 돼지고기의 제 맛이 난다.

시금치에그롤

재료 > 시금치 150g, 참기름 1작은술, 다진 마늘 1작은술, 맛술 1작은술, 다진 붉은 고추 2큰술, 다진 풋고추 1큰술, 다진 파 2큰술, 소금·후춧가루 약간씩, 달걀 4개, 청주 1큰술, 우유 1큰술, 다시마 우린 물 3큰술, 식용유 적당량

<만드는 방법>

- ① 시금치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 찬물에 헹군 후 1cm 길이로 송송 썬다.
- ② 데친 시금치를 볼에 담고 참기름, 마늘, 맛술, 다진 고추, 다진 파, 후춧가루를 넣어 무친다.
- ③ 달걀은 깨뜨려 체에 거른 후 청주와 우유, 다시마 우린 물과 섞는다.
- ④ 팬에 기름을 두르고 ③을 반 정도만 부어서 살짝 익힌다.
- ⑤ ④에 ②의 시금치를 펼쳐놓고 돌돌 말아 주면서 달걀을 익힌다.
- ⑥ 팬에 나머지 달걀 푼 물을 부어 익히면서 ⑤의 시금치에그롤을 올려 다시 말아준다. 달걀이 익으면 뜨거울 때 김발로 말아 모양을 잡아준다.
- ⑦ 시금치에그롤을 한 김 식힌 후 1cm 두께로 썰어 접시에 담아 내놓는다.



이달의 읽을 만한 책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가르시아 마르케스 著, 송병선 譯/민음사



마르케스는 『백년 동안의 고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현존하는 작가 가운데서 가장 비중 있는 원로의 한 사람이다. 그의 최근작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은 출간 전부터 세상의 관심을 끌며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작품이다.

이 책은 90살에 가까워진 마르케스의 자전적 요소가 적지 않게 투영된, 늙은이의 사랑과 섹스에 대한 이야기이다. 주인공인 노인은 90살 생일을趁려와 한 침대에서 맞이하고자 한다. 그 사이사이에 자기가 과거에 만났던 창녀들에 대한 추억을 펼치고, 또 부모님과 음악과 책과 고향의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주인공은 “아흔 번째 생일에 델가디나의 행복한 침대 속에서 살아 있는 몸으로 눈을 뜨자, 인생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어지러운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석식에서 몸을 뒤집어 또 90년 동안 나머지 한쪽을 익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흡족한 생각”을 한다.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은 어찌 보면 노후(老耄)일 수도 있지만, 젊은 영혼을 지닌 한 노인의 늙음에 대한 멋진 응수이기도 하다.

〈추천위원 : 이남호(고려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조선의 마음... 신봉승 / 선 출판사



문학이든 역사든 ‘스토리’를 기본으로 하는 서사구조로, 서로 사춘쯤 된다는 인식은 전통시대의 상식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역사는 문학에서 유리되어 사회과학으로 편입되고, 재미없는 과목으로 전락하였다. 스토리가 실종되고 분석의 대상이 되어 형해화(形骸化)하였다.

이 책은 ‘문학으로 읽는 조선왕조사’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조선의 마음’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옛날 이야기하듯 문학적으로 쓴 조선시대 역사서이다. 나라이름을 지은 조선 초부터 국망(國亡)을 당한 비운의 순종 황제의 유서에 이르기까지 주요사건을 56 편의 역사 칼럼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그렇다고 하여 실증을 등한시한 것도 아니고 『조선왕조실록』등을 근거로 하면서도 연대기적 통설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식민사관의 그늘에서도 벗어나 “조선왕조는 가난한 나라였어도 지혜로운 나라”라는 나름의 해석도 하고 있다.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사람냄새가 나는

역사이야기이다. 〈추천위원 : 정옥자(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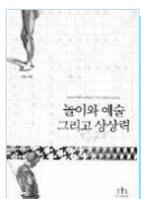
감정의 연금술... 타라 베넷 골먼 著, 윤규상 譯 / 생각의 나무



넉넉할 때는 세계를 품다가도 편협할 때는 바늘 하나 꼽을 자리가 없는 것이 마음이라 했던가.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마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불안에게, 두려움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스스로 고통당한다.

『감정의 연금술』은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감정의 혼돈을 살피고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증오감으로부터, 분노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질투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인정해서 자신이 언제 불안해하고 언제 분노하는지를 들여다보자. 그것이 깨어있는 마음의 첫 단계다. 원래 고대의 연금술사는 납을 금으로 변화시키려 한 사람들이었다. 저자는 연금술을 혼란과 고통을 맑고 또렷한 통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은유로 읽고 있다. 〈추천위원 : 이주향(수원대 교양학부 교수)〉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진중권 / 휴머니스트



“아는 것이 힘”이라던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은 이성의 가능성을 지피는 풀무였다. 이제 그의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상상하는 것이 힘’이라고. 이성의 시대에 궁극의 추구점이 진리였다면, 이 탈근대 혹은 탈근대 이후의 시대에는 그 자리를 재미가 차지하게 되었다. 노동이 유희로 뒤바뀌는 세상이 된 것이다.

저자는 주사위, 체스, 숨바꼭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물구나무, 그림자놀이, 인형놀이, 수수께끼, 미술, 만화경 등 수많은 놀이와 게임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놀이는 ‘우연과 필연’, ‘순간에서 영원으로’ 등 일곱 가지 큰 테마로 다시 정리되어 등장한다.

여기에는 윤리학이 미학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언한 마르쿠스의 입론이 바탕을 일구고 있으며, 서구 미학사를 빛낸 여러 인물들의 예화와 논점이 끝없이 돌출적으로 등장한다. 독자는 사고게임을 하듯이 이 책을 읽어내야 한다. 〈추천위원 : 김갑수(문화평론가)〉

지부소식

전국 16개 시·도 지부 234개 시·군·구 지회

부산광역시지부

사교육비 모니터

시지부

지난 7일~9일까지 시지부는 부산 시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입학원과 논술학원 및 영어학원 등에 대한 사교육비를 공개조사와 암행조사로 나누어 실시했다.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사교육비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해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등록금 안정사업 토론회

시지부

지난 15일 본회 강의실에서 각 학교 등록금 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각 학교의 등록금을 비교 분석하고 등록금 인상을 견제하며 어려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비 안정을 꾀하

고자하였다.

김기묘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 송병창 교수의 주제발제와 함께 교육위원회, 유치원 연합회, 학부모대표, 소비자대표, 교육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구광역시지부

소비자모니터 교육실시

시지부

시지부는 지난 4월 8일~5월 27일까지 대구시립도서관 3층 1강좌실에서 소비자모니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불만과 소비자 문제에 대한 조사활동 및 생필품가격조사 등 소비자

가 일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를 직접 접수받고 개선하는데 참여하는 소비자모니터들에게 소비자의 정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비롯한 바람직한 소비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모니터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등산반 산행

시지부

지난 13일 경남 함안에 위치한 방어산으로 등산반 산행을 했다. 산행을 통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였으며 곳곳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논개의 충절이 어려 있는 축석루에 들려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인천광역시지부

‘남녀고용평등 경기 대행진’ 참가

시지부

지난 2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과

문화예술회관에서 경인지방노동청이 주관하는 '남녀고용평등 견기 대행진'에 참가하여 양성평등고용 실현이 평등사회를 향한 첫 걸음임을 강조했다.

'환경 지킴이' 활동

남동구지회, 남구지회, 강화구지회

환경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일상 생활 속에서의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환경 지킴이' 활동을 각 지부가 전개했다.

남동구지회는 지난 3월 인천시와 시민단체 연합이 함께 전개하는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캠페인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발대식에 참가한 후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6일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지키고 깨끗한 도시 인천을 가꾸는 '환경 지킴이' 행사에 동참해 환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남구지회는 매월 첫째와 셋째 월요일에 환경 캠페인으로 길거리 청소를 실시하기로 하여 지난 2일과 16일 주안 5동에서 쓰레기 줍기와 주변 환경



을 정리했다.

강화구지회도 지난 25일 자연보호 캠페인을 회원 11명이 전개했다.

효(孝) 실천 캠페인

서구지회, 남동구지회, 계양구지회, 부평구지회, 연수구지회

각 지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어르신들께 한 발짝 다가서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우리의 미풍양속인 효를 실천하기 위해 중식제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서구지회는 지난 11일 석남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을 회원 8명이 방문해 따뜻한 점심을 대접했고, 남동구지회는 회원 15명이 지난 14일 관내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을 찾아가 180분의 어르신들에게 중식을 제공했다.

계양구지회는 회원 10명이 관내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290분의 어르신들께 정성을 담은 식사를 대접했다.

부평구지회는 회원 10명이 외롭게 홀로 사시는 부평복지관의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 밑반찬을 전달했다.

연수구지회는 영락요양원 어르신 18분을 모시고 인천대공원 벚꽃 구경 나들이를 갔다. 작고 아름다운 손길 하나하나가 외롭고 지친 노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큰 사랑으로 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광주광역시지부

**농산물 및 식품명예감시 활동
시지부**

지난 1일~2일 이틀간 비아장터시장과 농산물시장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의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회원 3명이 활동했다.

이러한 감시 및 단속활동은 수입 개방화로 싼 가격의 수입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 판매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유통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킴에 따라 우리 농산물 보호와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22일 이틀 간 남구청의 식품명예감시위원으로 회원 1명이 위촉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제조와 유통 및 집단 식중독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명예감시활동을 전개했다.

남구청 직원과 함께 남구관내 위치한 자동차공장과 병원 내의 구내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식재료의 안전성 및 조리기구·조리원·조리과정의 위생 등 식품 제조 전 과정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대전광역시지부

**주부교실 지도자 연수
시지부**

지난 4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시지부 이사·운영위원·소비자모니터 등을 비롯한 시지부 임원과 동구·중구·대덕구·유성구 5개 지회 임원들과 분회장과 임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한남대학교 김형태 부총장이 '자녀 교육'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으며 긴장을 풀고 화합 도모를 위해 레크리에이션을 펼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 주부교실 각 지회의 임원단들이 올 한해 이끌어 나가야 할 사업에 대한 분임토의 시간을 가졌다.



**제16회 소비자 정보전시회
시지부**

지난 13일~19일 7일간 대전광역시청 1층 로비에서 2004년도 주부교실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사

례들을 판넬로 만들어서 전시하는 제16회 소비자 정보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소비자가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인터넷 학습사이트와 쇼핑물·마켓플레이스 등의 이용시 소비자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이번 정보전시회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육류 및 계란의 등급제에 대한 다양한 입체자료와 실험기회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우리 축산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제28회 주부교실 회원 친선운동회
시지부**

지난 4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 운동장에서 회원 간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운동회를 개최했다. 참가 분회 회원들의 행진을 시작으로 화합과 결속

을 다지기 위한 공동체 놀이까지 회원들이 함께 호흡하며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지역의 인사들과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 주부교실의 담당교사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내빈 전원이 참여한 축하 경기인 신나는 댄싱투호놀이를 비롯해 80m 달리기, 분회별 집단물동경연대회, 4인 5각 빨리 걷는 경기, 지회별 줄다리기 등의 경기로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이번 친선운동회는 공동체 의식 함양과 더불어 주부교실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할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다.



울산광역시지부

**농산물 유통활성화 교육
시지부**

지난 6일 주부교실 문화교실에서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

남지소에서 나온 전문 강사로부터 국산과 수입 농산물에 대한 비교 설명을 비롯해 GAP 인증제도·친환경 품질 인증 농산물 표시 설명을 듣고 더불어 국산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교육을 겸한 실질적인 교육이었다.



실버 웰빙 건강(요가)교실 운영
시지부

매주 금요일 문화교실에서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교실은 지역 어르신들이 느끼는 고독과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며 다양한 문화적 삶의 향유로 즐겁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제공해드리고자 실버 웰빙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삼랑진 양수발전소 견학

시지부

회원 45명이 지난 19일 청평 양수발전소에 이리 2번째로 건설된 국내 최대 발전소인 삼랑진 양수발전소를 방문했다. 시설용량의 규모가 60KW급에 이르는 삼랑진 양수발전소를 견학하면서 전기에너지의 중요성과 이용 실태 및 전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예비전력 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지구의 날 환경보전 캠페인과 청소년 환경탐사대 발대식 개최

시지부

제35회 '지구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에 울산지회에서는 22일 울산시청과 회야정수장에서 회원 40명이 오전 9시부터 3시간동안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에서 자연 정화 활동을 펼쳤다.

다음날인 23일 오전 11시 중구 태화동 태화강 생태공원에서 지난 3월부터 환경 탐사대 결성 모임과 활동 계획 수

립 등의 과정을 통해 결성된 청소년 환경탐사대 발대식을 갖고 단복과 대원증 및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은빛사랑과 함께하는 영양전 만들기

시지부

지난 30일 회원 20여명이 울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방문해 '은빛사랑과 함께하는 영양전 만들기' 행사를 마련했다.

원아들에게 어른과 함께하는 요리 활동을 통해 어른 공경의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등 바른 인성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영양전을 만들며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지부

사회복지시설 방문

도지부

지난 19일 도지부 회장, 연천 한마음애집 원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평화의 모후원'을 방문해 외롭게 말년을 보내시는 독거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만두 500개를 전달하며 위로했다.



소비자상담 실무자 및 모니터 교육 수원시지회

지난 4일 팔달문 고객지원센터에서 실무자 및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상담 실무자 및 모니터 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 이승용 사무관으로부터 식품의 표시기준과 건강식품 등에 관한 개정된 법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소비자생활정보전시회

의왕시지회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왕시지회는 12일~13일 이틀간 의왕전철역사에서 관내 내빈과 회원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생활정보전시회'를 열었다.

소비자 정보채널 50여점과 국산·수입 농산물 비교전시 40여점 및 의왕시 생산물인 품질인증마크의 우렁쌀과 무농약삼채류, 콩나물 홍보전시와 함께 금연 홍보패널 10여점, 에너지절약 홍보패널 15점 전시 및 에너지절약 실천약속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소비자들의 주권 찾기가 소비자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올바른 유통과 불공정 거래근절,



건강과 환경 등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 지정 캠페인

평택시지회

지난 21일 회원 15명이 평택우체국 사거리에서 매월 첫째 수요일을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로 만들자는 거리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들에게 단 하루만이라고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을 만들어 우리 환경을 지키자는 구호를 외치며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예절교육 실시

광명시지회

지난 27일 광명시 하안 1동 사무소에서 지역주민과 통장님을 모시고 시민예절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복입기, 언어예절, 호칭, 전화예절, 대인관계 및 음식예절 등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예절을 계승하고 사회생활의 기본 도리와 규범을 익혀 선진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자리가 되었다.

강원도지부

양양 산불지역 방문

도지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도

지부 회원 30명이 양양산불지역을 찾아가 화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재민들에게 의류와 신발 및 식료품을 전달하면서 빠른 재기를 기원했다.

단종문화제 참가

영월군지회

지난 7일 단종문화제가 열리는 동강 둔치에서 '영월 침출다리기 대회'에 회원 25명이 참가해 조선왕조 500년사 가운데 가장 슬픈 역사의 화신인 단종의 고향과 충신들의 넋을 기렸고 관광객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산불예방활동 참가

강릉시지회

지나 7일 오죽헌 시립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산불예방교육에 회원 20명이 참석했다.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를 맞아 산림자원의 보호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뿌리 뽑고자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산불에 대한 주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청정 환경도시 위상 정립

원주시지회

지난 8일 치악예술관에서 원주를 청정 환경도시로 만들고자 회원 15명을 비롯한 지역주민 700여명이 함께했다. 환경보호와 개인 생활개선을 통해 최상의 삶의 질 확보와 더불어 건강의 평등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유채꽃 축제 참여

삼척시지회

지난 8일 근덕면 상맹방리 유채꽃밭에서 펼쳐진 유채꽃 축제에 회원 50명이 자전거 타기와 사진 공모에 참가해 추억과 낭만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북도지부

시·군 지회장 순회

도지부

도지부는 지난 7일~14일 8일 동안 각 시군지회를 방문해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며 조직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유통활성화 소비자교육

음성지회

11일 음성자활후견기관교육장에서

회원 50명이 유통활성화를 위한 소비자교육을 받았다. 소비자 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합리적인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사랑나누기 봉사활동

괴산지회, 옥천지회, 제천시지회

괴산지회는 지난 4일 성천재활원을 회원 5명이 찾아가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밀반찬을 마련해 전달했다. 12일에는 회원 11명이 소수면에 외롭게 사시는 독거노인의 집 도배 공사를 도왔다.

옥천시지회는 8일 군서면 동산리에 위치한 노인정을 방문해 식사대접과 함께 말년의 쓸쓸함을 위로해 드렸고, 22일 여성회관 앞마당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했다.

제천시지회는 4일 회원 10명이 사회복지시설인 하소리복지관을 방문해 중식제공과 주변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충청남도지부

에너지절약 캠페인

도지부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 22일 에너지관리공단 대전·충남 지사장과 공동으로 천안 갤럭시아백화점 광장에서 회원들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홍보 전단지 와 온도계, 자 등을 배포하면서 도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장애인시설 자원봉사

공주시지회

제2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20일 공주시지회에서는 반포면 소재 장애우시설인 명주원을 방문하였다. 작업장에서 장애를 겪으면서도 재활의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애우들과 함께 회원 20명이 준비한 떡을 먹으며 그들을 위로 격려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공주시지회는 장



애우와 비장애우 간의 사회적 차별의 벽을 넘어 그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강화와 함께 봉사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라북도지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축산위생감시원 활동

도지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축산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회원들이 지난 4월 중 4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들과 함께 종업원의 복장 및 주방의 청결상태 등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해 모범음식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였고, 정육점과 대형마트를 찾아가 부정·불량 축산물을 유통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식육원산지 표시 감시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 필요성을 촉구했다.

거리질서 캠페인

도지부

회원 20명이 18일과 25일 이틀간 전주 시내에서 기초 질서 지키기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회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플랜카드와 전단지 배포 및 차량의 정지선 지키기 계도 등을 통해 시민들이 거리질

서 확립과 교통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보리밭 축제 봉사활동과 장애인 돕기

고창군지회

지난 10일 공음면에서 열린 보리밭 축제에 회원 7명이 음료와 점심대접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며, 20일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군내 위치한 복지회관을 방문해 성금을 기탁했다.

자연환경 정화운동

완주군지회

지난 27일 회원 25명이 모악산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는 환경 정화 캠페인



을 실시했다. 쓰레기 제거와 함께 등산객들에게 산불조심 리본을 가슴에 달아주며 산불조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자연보호에 동참해줄 것을 유도했다.

**주부사이클대회
순창군지회**

제43회 순창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14일 순창읍 복지회관 광장에서 제18회 주부사이클대회를 개최했다.

복지회관광장을 출발지로 팔덕청계삼거리 구간을 왕복하면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가 순창군의 평온과 안녕을 기원했다.

전라남도지부

**물가안정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 교육
나주시지회**

지난 13일 나주시청회의실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리적인 소비생활 습관 및 인식 고취를 위하여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동신대학교 송문갑 교수로부터 '물가안정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판단과 동시에 경제사회에서의 소비자로서의 역할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장애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도우미
봉사활동
나주시지회, 광양시지회, 해남군지회**

나주시지회는 지난 25일 새 보금자리로 이사한 장애복지시설인 요안나의 집을 방문했다. 중증장애를 겪으면서 힘겹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항상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이삿짐 정리와 주변 청소 봉사활동을 펼치며 위로 격려했다.

광양시지회는 26일 회원 10명이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인 실로암 마을을 방문하여 봄맞이 새 단장을 위해 이불 빨래와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해남군지회는 '함께 뛰자 해남에서 도약하자 전남미래'를 슬로건으로 210만 전남도민 화합의 한마당잔치인 제 44회 전남도민체육대회에 동참하여 무료 음료 봉사 및 도우미 활동을 전개해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사회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쓰레기 홍보단 발대식 참가
광명시지회**

지난 20일 광명 시청 회의실에서 가진 쓰레기 홍보단 발대식에 회원 20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쓰레기 중 재활

용이 가능한 물품의 재생 홍보와 함께 생활 속의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경상북도지부

**사랑나눔 실천하기
상주시지회, 김천시지회, 경주시지회, 성주군지회**

상주시지회는 21일 남성동 농협에 식당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영세민 및 장애인 합동결혼식' 행사에 축의금 전달과 함께 도우미 봉사활동을 실시해 불우한 환경 때문에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했던 신랑신부들의 미래에 영원한 행복이 있기를 기원했다.

김천시지회는 지난 19일 장애인들에게 의료·교육 및 직업 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종합복지관 준공식에 안내 도우미와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증진 기여에 동참했다.

경주시지회는 13일 안강읍 보화식당에서 '외국인 근로자 위안의 밤' 행사를 실시했다. 근로자 31명을 비롯한 참석자 71명이 함께 식사와 선물 증정 및 다과의 시간을 통해 먼 타국에 와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보람

된 자리였다. 18일에는 안강읍사무소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깨끗하게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안강 여자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과 함께 사랑과 희망을 전달했다.

성주군지회는 성주군 주관으로 열리는 '시민걷기대회' 행사에 회원 15명이 참여했다. 성박숲에서 성주읍내까지 걷는 이번 대회 1500여명의 참가자들의 접수 및 구간별 물나눠주기 돕기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군내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지역발전 도모에 앞장섰다.

**'공명선거캠페인' 실시
군위군지회**

지난 7일 군위읍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공명선거캠페인 행사에 회원 전원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가 지역발전과 더불어 나라발전의 지름길임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건강한 가정문화 만들기
칠곡군지회**

지난 20일 에인보우 영어전문학원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녀와 부모와의 원활한 대화법을 주제로 오금숙 교수의 부모교육이 실시되었다.

효과적인 자녀 지도방법과 건강한 가정문화의 기초는 부모와 자식 간 대화를 통한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임을

강조했다.

경상남도지부

**전국주부교실 경남지도자 한마음
대회
도지부**

지난 12일 마산실내 체육관에서 시·군 지회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주부대학 동창회와 내빈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지도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해주신 이옥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국장, 허학용 경상남도 보건복지부 여성국장, 황철곤 마산시장, 송완용 마산교육청 학무과장 등의 축사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화목한 가정, 행복한 사회구현에 앞장서는 주부교실이 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경기를 마련해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으며 후속사업으로 진행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우리전통 문화 계승발전과 함께 건



제주도지부

**사교육 조사활동
도지부**

지난 7일~9일 3일간 물가감시모니터 5명이 물가감시사업의 일환으로 학원수강료 감시를 통한 사교육비 안정 사업을 전개하기위해 제주도내 위치한 입시종합학원, 영어전문학원, 논리·논술·글쓰기 학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어린이 비만극복을 위한 걷기대회
도지부**

지난 29일 제주동 초등학교와 함께 전개하고 있는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비만극복을 위한 걷기대회를 실시하였다.

제주동 초등학교 기초체력반학생 120명과 주부교실 회원 20여명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라·변도봉에서 삼양해수욕장 구간 8km를 왕복하는 걷기대회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시간을 갖고, 어린이 비만의 사회적 심각성을 알림과 동시에 비만어린이가 스스로가 비만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부교실게시판

□ 우리 쌀 바로 알기 세미나

우리 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고품질 쌀의 소비기반 구축과 함께 외국산 쌀의 국내 시판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는 세미나가 전국 농어민신문사 주관, 본회 후원으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2005. 6. 1(수) 15:00
- 장 소 : 농협하나로클럽(양재점)
- 행사내용 : 1. 우리 쌀 바로알기 세미나
2. 부대행사(2004년 브랜드 쌀 전시, 우리 쌀 시식 및 쌀 요리 시연, 쌀 관련 제품 전시 등)
- 문 의 : (02)2265-3628

□ 가족캠프 운영

최근 가족중심의 우리나라 가족문화가 개인 중심문화로 바뀌고, 우리사회에 개인이기주의 팽배로 가족간의 결속이 약화되면서 가족해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주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간 화목을 도모하고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다음과 같이 가족캠프를 운영합니다.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5. 6. 24(금) ~ 26(일) (2박3일)
- 장 소 : 모둘자리 관광농원(강원도 홍천군 소재)

□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6월 프로그램 안내

본회가 여성적합직종개발 및 훈련으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된 직업 적성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광진구 소재)에서 다음과 같은 강좌를 새롭게 운영한다.

(문의: 3409 - 1948~9)

강좌명	교육내용	기간 및 강의시간	수강료
사회적일자리여성취업지원사업 (여성부80%지원)			
재활간호 및 케어복지	간병인 · 산모 · 아기 돌보기를 위한 학습과 실습	5. 30 ~ 6. 29 월~금 09:30~13:30	3만원
단기직종프로그램			
간병인	환자를 돌보기 위한 기초부터 차근차근, 실습까지 한번에	6. 27 월 / 2주 09:00~13:30	무료강좌
재직자 수강 지원금프로그램 (재직자/고용보험가입자: 환급80~100%)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55종류 실기시험 대비 실습	5. 2~6. 27 월, 수, 금 19:00~22:00	30만원 (80%환급) 일반과정/20만원
전산세무 회계반	기초부터 회계, 세무, 더존프로그램	4. 19 ~ 7. 12 화, 목 19:00~22:00	35만원 (80%환급) 일반과정/21만원

□ 소비생활에서 입은 피해 상담 및 구제

본회는 소비자들의 권익향상과 피해구제를 위해 전국 48개 지역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해 소비자들의 고발사례들을 접수받고 있다.

- 전 화 : (02)2273-2485, 6300, (02)2265-5870
- FAX : (02)2279-9341
- E-mail : nchc01@chol.com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19-3 (100-015)